2009년
8월 1일
제 88 호

KBS 社友會報
www.kbssau.or.kr

社友會 目標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김수웅 / 편집인 윤대작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733-2189, 732-8159/ 팩스 (02)3210-1449

KBS 사우회, 수신료 현실화 전폭지지

KBS 사우회는 7월 24일 경운동 회의실에서 제 70차 이사회를 열고 KBS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사우회는 결의문을 통해 올 상반기 흑자 경영 성과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수신료 현실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사우회는 지금의 흑자경영 기반이 정착 되도록 KBS가 가일층 노력하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공영방송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줄 것을 요망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 원고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했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신료 현실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KBS 사우회'(회장 김수웅)는 KBS가 세계 일류 공영방송의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수준 높은 방송을 지속할 수 있도록 TV 수신료가 하루빨리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KBS가 올 하반기에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데 대해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수신료 현실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결의 하였다. 우리의 TV 수신료는 1981년 한 달에 2500원으로 책정된 후 30년 가깝도록 동결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그 결과 KBS는시급히 마무리해야 할 디지털 방송 전환 작업과 공영방송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 향상을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TV 수신료 현실화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국민들은 KBS의 방만한 경영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비능률과 고비용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었다.

KBS는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들의 이런 비판과 요구를 수용하여 인건비와 제작비의 대폭적인 절감 노력 등을 통해 2009년 상반기에 3년만의 흑자 달성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수신료와 선진국의 수신료를 비교하면 일본은 9.1배, 영국은 10.5배, 독일은 13.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KBS는 디지털 방송 전환 사업 등 공영방송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지난 정권에서도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그 나름의 노력이 있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수신료 인상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KBS 사우회'는 KBS의 피나는 자구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에는 수신료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건실한 독립제작사 대표 대부분 KBS출신

전문성 · 능력 갖춰 프로그램 제작 뛰어나

KBS출신 독립제작사 대표들이 대부분 우수한 프로그램제작과 건실한 경영의 주축이 되고 있다. 현재 독립제작사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28개사에 불과하나 실제 방송프로그램제작사는 300여개에 달하고 있어 경쟁은 아주 치열하다.

KBS출신 제작사 22개사 경영주들은 KBS재직시 쌓은 다양한 제작경험과 건실한 기업문화 정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제작. 조직운영과 관리, 경영 측면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낸다. 실제 금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한 제작사는 1,000개사를 넘고 있으나, 대부분 협회 가입조차 하지 않아 프로그램 제작·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좋은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독립제작사 선두그룹에는 항상 KBS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다큐서울(정수웅) 대륙미디어(박의근) (주)리스프로(이상준) 마당기획(김성응) (주)미디어파크(유승호) 민족영상(김광식) (주)비젼마스타(최종덕) (주)씨제이콤(주평문) (주)아이엔유니버설엔터(김영렬) (주)와이드프로(신영주 공동대표) (주)제3비젼(윤기호) (주)제3영상(장재원) (주)제이알엔(전형태) (주)킴미디어(김세웅) (주)타임프로덕션(홍태희) (주)톱프로덕션(백승대) (주)티브이유니온(이원혁) (주)투데이프로덕션(김영태) (주)티브이엣(박성주) 한국방송플러스(신동환) 해오름프로덕션(정선언) (주)C&U콘텐츠(신승현)

발전기금 기탁

하준호 회우

양휘부 회우

유철주 회우

하준호 (칠레주재 보안카메라업)회우가 '회보와 수첩, 등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본회의 깊은 관심에 감사한다'면서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탁해 왔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양휘부회우와 유철주 회우도 발전기금 30만원씩을 각각 보내왔다. 유회우는 조명감독 시절 평생 모은 드라마 대본 등 희귀자료 2693점을 KBS 역사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회비내신분

2006년/	유상호	2007년/	유상호	정영호	2008년/	강미란	구숙경	권윤기	김대열
김미회	김봉식	김우석	김자규	김흥수	남영화	서동숙	서송훈	엄동훈	위진록
유덕훈	유상호	유숙희	이병훈	이승상	이철규	정영호	정철응	최재구	허계근
홍성우	2009년/	강미란	강희수	고석두	권오한	김대열	김미회	김봉식	김시영
김용호	김우석	김자규	김진철	김화석	김효경	김흥수	류명근	박수창	박영환
박용호	박학식	배일웅	배진수	서기원	서동숙	서송훈	서정원	서종학	송태성
신노성	신행식	양창석	엄동훈	염현섭	오철환	오평환	위진록	유기현	유덕훈
유상호	유숙희	윤재홍	이광태	이덕송	이동옥	이병훈	이승균	이승상	이원일
이창열	이철규	이춘명	이 활	장남기	정영호	정의륜	정종철	정철응	조부성
조태오	지수복	지원일	최선고	최익로	최일녕	최재구	최정광	홍성우	
2010년/	강미란	김민기	김시영	김용호	김창곤	선정은	신행식	어호선	윤재홍
이동옥	이세진	이원일	이정석	이창열	정영호	정철응	최정광	홍성우	
2011년/	김시영	선정은	어호선	이정석	정영호	2012년/	선정은	이정석	정영호
2013~2017년/	정영호								

(09년 6월 17일~09년 7월 20일까지 접수분)
송금계좌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KBS 사우회 ◈E-mail : kbssau@kbs.co.kr ◈세미나실(여의도 KBS 연구동 4동 107호) Tel 781-8362, FAX 781-8269

KBS 8월호 2009.7.28 5:36 PM 페이지2

삶의 단상 3

국가의 품격

鄭九鎬

한 국가의 품격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만들어가는 문화이다.

또한 품격 있는 국가란 그 문화 속에 높은 도덕성을 중히 여기는 삶의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발달은 우리 현대인의 가치관을 파편화 시키고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룩된 가치관에 의해 지켜지던 우리 사회의 질서는 기계문명의 발꿈치에 채여 세계 도처에서 신음하고 있다. 급기야 일본에서는 흘어져나가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주워 모으기라도 하듯 얼마 전 부터 수학자 후지와라(藤原正彦) 교수의 『국가의 품격』이란 책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3년여 만에 3백여만부가 팔렸다고 한다. 후지와라 교수는 오랜 불황으로 어렵고 자존심마저 꺾여 온 일본사람들의 자긍심을 한껏 추켜 올려주려 하고 있다. 서구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정신이 황폐화된 지금의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사도정신'을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그는 무사도정신의 최고 미덕은 '패자에 대한 공감', '약자에 대한 애정', '열등한 자에 대한 동정'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 자행한 만행은 무사도정신이 쇠퇴했기 때문에 발생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일본의 '명품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책이 일본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인기가 높을까. 그것은 일본인을 무사도라는 정신으로 자랑스럽게 포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수한 (그들이 말하는) 일본 국민의 행동기준이나 도덕기준은 무사도정신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 후지와라 교수의 해석이다.

무사도(武士道)라 불리는 무사의 도덕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에도(江戶)시대 초기 무렵이다. 로닌(浪人)출신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무사들의 직분을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아닌 "덕을 밝게 하여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무사의 '유교화'를 꾀하고자 했다. 무사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도덕이 없이는 그들의 생활이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사의 도덕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무사도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덕목으로는 의(義), 인(仁), 견인(堅忍), 예(禮), 명예(名禮), 충의(忠義), 극기(克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충효(忠孝)는 무사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이들은 "무사는 선비가 되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거칠고 난폭한 무사기질을 유교에 의해 세련, 융화시킴으로서 이상적인 오늘날 무사도의 기틀을 잡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무사도와 조선 선비의 윤리관이 거의 같다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호사카 유지(세종대)교수의 말대로 무사도의 정신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유교의 이상적 철학을 실천적 철학으로 발전시킨 우리나라 선비정신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들어 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 외에도 객관적 인식과 존중에 바탕을 둔 문화의 정체성(identity)를 요구한다. 이점에서 일본은 무사정신으로 자국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 정신을 『국가의 품격』 같은 책이 지속적으로 재정비시키므로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후지와라 교수의 저서도 하나의 예(例)일 뿐이다.

약 100년전 니도베 이나조(新渡戶稻造)가 영문으로 써 근대의 무사도 정신을 세계에 인식 시킨 저서 『무사도, BUSHIDO : The soul of Japan』에서 제시한 무사도의 윤리관을 후지와라도 그의 저서에서 끊임없이 상기 시키고 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통문화가 있다. '선비정신'이 그것이다. 바로 그 정신이 일본 무사정신의 근간(根幹)을 이루게 하였다. 그런데 그 '선비정신'에 대한 우리네 인식이 탈색되어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선비정신'을 마치 구시대적 낡은 유산으로 가볍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세(勢)를 이루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신의와 예의를 지키는 것"을 무시할 사람은 아직 우리 한국인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전통문화인 '선비정신'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좀 늦은 느낌이 있지만 훌륭한 선비들의 생애를 집중 조명하는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을 만들어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함과 아울러 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문화, '선비정신'을 문화의 강력한 가치로 세계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의 품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의 NHK는 주군의 원수를 갚는 46인 '무사이야기'의 '추신구라(忠臣藏)' 대하드라마를 1963년 첫 방송한 이래 수없이 계속 방영하여 그들 무사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계몽적 프로그램을 우리 KBS도 제작해 볼 만하지 않은가 싶다.

가치관이 파편화 되어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우리 문화의 시작과 근본인 충(忠) 효(孝)인(仁)의(義)지(知) 예(禮) 신(信) 선비정신의 역사를 되짚어 보아야 하겠다. 비록 그 어휘의 전근대성 때문에 이제와 즐겨 활용하는 용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인가 지인이 보내준 책의 첫 장을 열었을 때 내게 신선한 충격을 준 문구가 생각이나 적는다. 미국의 United Technologies 사의 기업광고를 모은 『카피, 카피, 카피』(원제:Grey Matter)라는 책이었는데 나는 그 책을 그저 상업주의의 표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첫 장을 열었다. 그런데 책머리엔 이렇게 적고 있었다. " 개개인의 행동거지(行動擧止) 는 국가 전체의 흥망성쇠를 결정 짓는다.(How we perform as individuals will determine how we perform as a nation)" 각각의 개인은 국가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이다. 외국여행을 해 본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실감 하였을 것이겠지만. 그래서 나 개인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국가의 품격은 나 개인의 품격을 대신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회장, 전 KBS 사장)

회우여러분은 지금…

동정

◆ 김성호(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7월 15일 대한적십자사 i-redcross위원회 고문으로 위촉
◆ 이광연 / 고양시에 프랜차이즈 한우전문점 '와우가' 일산점 개업
◆ 이청수(국제홍보협회 한국회장) / 조선일보 7월2일자 '오피니언' 난에 시론 "'비정규직' 사태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쥴여야"게재
◆ 이홍상 / 큰딸 이정희(파이프오르간 연주자)양 세계인명사전에 등재

자녀결혼

◆ 이창열 / 딸 (7/11)
◆ 김길용 / 딸 (7/25)
◆ 정일화 / 아들 8월 22일 12시 코리아나 호텔

산수

◆ 김현성 / 8월 2일
◆ 조부성 / 8월 15일
◆ 김헌식 / 8월 16일
◆ 유진동 / 8월 29일

고희

◆ 우석호 / 7월 27일
◆ 임영대 / 8월 8일
◆ 강수식 / 8월 28일
◆ 안재승 / 8월 28일
◆ 김영송 / 8월 29일

희수

◆ 이동린 / 8월 8일
◆ 김광수 / 8월 10일
◆ 오철환 / 8월 13일
◆ 이대형 / 8월 22일
◆ 홍민기 / 8월 27일
◆ 김계섭 / 8월 28일

부음

◆ 허영구 / 모친상 (6/30)
◆ 김형복 / 장모상 (7/ 9)
◆ 박창학 / 장모상 (7/20)

별세회우

심의위원을 역임한 허 환 회우가 6월 29일 숙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71세

정영호 미주지회장 본회방문

정영호 미주지회장이 7월3일 사우회를 방문,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정 지회장은 그동안 보여준 지회지원에 깊이 감사하고, 지회회원들의 근황을 일일이 전했다.

사무국은 이날 상반기 지원금을 전달 하였다.

자문그룹 상담 활발

본회는 7월 10일 법률·법무·세무 분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상담분야

[법률] 법무법인 위너스(손교명 변호사·곽병철 변호사) 02) 3478-1060, 한국인권옹호협회(유재경 상담실장) 02)2603-3506 010-5494-1264 [법무] 하나법무법인(남영호 법무사) 02-784-4700(서울 여의도) [세무] 백두진 세무사 02)741-2222 (서울 종로) 류대현 세무사 031)622 -0200(성남 분당)

상담방법

- 전화, 메일, FAX 상담 가능함.
- 전화번호는 사무실을 원칙으로 하되 유재경 실장의 경우 휴대폰도 가능

노정팔선생 7주기 추도회 가져

해방 후 최초의 PD(편성)로 한국방송공사 초대 감사와 민선 이사장을 지낸 노정팔 선생의 7주기 추도회가 7월 30일 인사동 한식당(촌)에서 열렸다.

추도회에는 최창봉 초대 사우회장을 비롯해 박경환, 김상헌, 김호영, 장한성 원로회우 등 1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 행사는 김성호 광운대 교수가 매년 선배 방송인 기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주관하고 있다.

●●● 여러분! 잠깐만 — 혼동하기 쉬운 나이 표현

나이를 표현할 때 틀리기 쉬운 것이 남자와 여자의 나이 표현을 혼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묘령(妙齡)'이라는 말은 '예쁠 묘'와 '나이 령' 자를 써서 '스무 살 안팎의 여자 나이'를 가리키는 말로 여자에게만 쓸 수 있다. 따라서 '묘령의 아가씨'는 맞지만 '묘령의 남자'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

'방년(芳年)' 역시 '20세 전후의 꽃다운 여자 나이'를 이르는 말로 여자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반면에 '약관(弱冠)'은 남자가 20세에 관례를 한다고 해서 '남자 나이 20세'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여자에게 '약관의 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예로부터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에 해당하는 나이에 이르면 그 나이를 이르는 별칭을 따로 썼다.

흔히 60세를 '회갑(回甲)', '환갑(還甲)', 70세를 '고희(古稀)', '종심(從心)', 77세를 '희수(喜壽)', 80세를 '산수(傘壽)', 88세를 '미수(米壽)', 90세를 '졸수(卒壽)', 99세를 '백수(白壽)'라고 부르고 각각의 나이를 축하하는 생일잔치는 뒤에 '잔치 연(宴)' 자를 붙인다.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팀〉

실·버·유·머

♣ 아랫집 아저씨가 인터폰을 누른 이유

내 친구는 워낙 쿵쿵거리면서 걷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항의가 잦았다. 그날도 아파트 아랫집 아저씨가 인터폰을 누르자 내 친구는 당황하며 사과의 말부터 생각했다.

그런데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주말을 맞아 아이 앞에서 아빠 요리솜씨를 자랑하려고 전을 부치다가 프라이팬을 이용해 전을 뒤집으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박력있게 올린 나머지 전이 천장에 붙어 버렸어요. 부엌에서 한 번만 쿵쿵거려 주시겠어요? "

글 : 김웅래(인덕대교수) 회우

편집위원 : 윤대작(위원장), 김광일, 김민기, 김성중, 문인수, 이동순, 이상수, 이세진, 이인우, 강선규(KBS), 이수영(부산), 장영수(창원), 도문개(대구), 최경천(광주), 김정숙(전주), 송정의(대전), 신영식(청주), 이운섭(춘천), 김춘빈(제주)

KBS 8월호 2009.7.28 5:36 PM 페이지3

방·송·유·사

일제 강점기 – 우리말 지킨 沈友燮 님

배일사상 뚜렷한 중견 언론인 · 문학가

일제강점기 경성방송국 제2방송과는 조선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못하던 조선어를 제2 방송과에서 만은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었다. 당시 그곳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긍지로 삼고 덕망 있던 많은 저명인사들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세 번째로 제2 방송과장이 된 심우섭님 이다.

심우섭 님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경성방송국의 우리말 전담방송인 제2 방송과장을 지내면서 우리말을 지키는 데 힘과 정성을 다 기울였다. 심우섭 님은 방송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배일사상이 뚜렷한 중견 언론인으로, 또는 문학가로 널리 알려 졌었다. 상록수로 유명한 심훈의 큰형님이며, 최초의 동요 '반달' 작곡가 윤극영의 고종사촌 형님이기도 했다. 여운형, 최남선, 노창성(최초의 방송인)등과도 계동 이웃에 살면서 친분이 두터웠다.

심우섭 님이 방송국에 들어 온 때는 그의 나이 47세로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 졌었다. 1대 윤백남, 2대 김정진 과장이 그렇듯 심우섭 님 역시 비중 있는 인사였고 우리말을 지키려는 확실한 신념을 지녔던 인물 이었다. 방송과장 시절에는 일제의 교육을 받은 아나운서들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서투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심우섭 님은 방송에서 잘못된 문법이나 발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방송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말을 바르게 써야 조선인들이 바른말을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무실에서는 물론, 집이나, 술자리에서도 늘 방송을 들으면서 잘못된 방송을 전화를 걸어 바로 잡아 주었다.

심우섭님을 과장으로 오랫동안 모셨던 이혜구 선생님은(101세 생존) 그의 저서 문채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심 선생님의 한자 읽기에 대하여 하도 심하게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 후 아나운서들은 자전을 방패로 방어했다. 하루는 서순원 아나운서가 "팽대를 하사 하셨다"는 뉴스를 방송하고 나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를 까. 과장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전화 틀 속에서 "너 지금 그 팽대란 것이 무엇이냐? 질문 반 꾸지람 반조로 물었다. 아나운서는 태연하게 대답하여 왈 "상처를 감는 헝겊 말입니다." "아! 붕대 말이로구나! 그게 붕대지 팽대라면 알 수 있나?" 서 아나운서도 지지 않고 항거 하였다. "아닙니다, 확실히 팽대입니다" "그건 붕대라고 해야 해" 아나운서는 얼핏 자전을 방패로 내세우고 그 밑에 머리를 감추었다. "자전에는 분명히 팽대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튿날 그것이 화제가 되어 繃자를 자전에서 찾아보았더니 과연 팽이라고 쓰여 있어 누가 옳고 그른지 몰라 모두 서로 눈만 바라보았다.]

심우섭 님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 제2 방송과가 제2 방송부로 승격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제2방송 뉴스에 일본어를 섞으라는 총독부의 지시가 내려왔다. 이는 아무도 거절 할 수 없는 지시였다. 그러나 심우섭 님은 단호히 거절했다. 심우섭 과장은 총독부에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종전대로 우리말 방송만 계속 하도록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제2방송부장직에 오르지도 못한 체 방송국을 떠났다.

이처럼 조국이 해방 될 때까지 우리 방송인들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광복 되던 날 우리 방송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말을 흐트러짐 없이 지켜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글 : 이장춘 회우

이승에서는 다시 뵐 수 없으매…

민두식 선배님 영전에…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生也一片浮雲起),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死也一片浮雲滅) 했거늘,

인생이 나고 감이 무슨 큰 의미가 있으리요만

그래도 우리 속물들에겐 선배님을 떠나보낸 뒷 여운이 허전하고 텅빈듯 아쉬움만 남습니다. 이승에서의 짧은 인연이 이렇게 가는 걸음 잡는 이유는 선배님과의 끈끈한 정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런지요… 일찍이 고시를 통해 관계에 투신한 선배님께서 문공부 중견 공무원 생활을 거쳐, KBS총무국장과 연수원장등 요직을 역임하시면서 짧지 않은 세월을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 하셨습니다.

공무원 체제인 중앙방송국에서 공사 체제로 전환하는 어려운 시기에 조기 자립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신 선배님의 모습이 선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발족되면서 KBS에 입사했을 때 인자하시고 중후하신 성품으로 후배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공사 발전을 부탁하시고 기대하셨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리 떠나시다니, 구름이 일어남이요 사라짐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평안한 나라에 가신 선배님,
인간들의 때가 묻지 않은 그 곳 청정나라에서
근심 걱정 다 잊으시고 자유롭게 사옵소서.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피안에서
길이 길이 복락을 누리소서.

글 : 이현원 회우

건강비결

마음 비우고, 후배들과 함께…

내가 KBS체육관과 인연을 맺은 것은 꽤 오래 되었다.

80년대 초 무렵 부터였으니까.

'밤 운동이나 낮 운동' 모두 좋지만 그래도 하루 빠짐없이 할 수 있어서, 아침 운동을 하게 되었다.

처음 일주만 어떻게든 견뎌내면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매우 많다.

나는 지금도 KBS체육관을 애용하고 있다. 다행이 집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퇴직하기 하루 전 후배들에게 "난 앞으로도 계속 나올거야 " 라고 선언을 했기에 그렇게 되었다.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 중량이 무겁거나 힘든 운동은 삼가하고 매일 기본적으로 런닝머신, 자전거타기, 벤치프레스 등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고 있다.

아침 7시경에 도착하여 운동과 샤워를 마치고 나갈 때는 9시가 다 된다.

매일 젊은 후배들과 어울리다보니 나도 더 젊어진듯 마음도 매우 상쾌하다. 매일 출근하는 사람처럼 체육관을 드나들자 어떤 후배들은 내가 아직도 현직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 어느 부서에 계시냐" 묻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지금 나처럼 체육관을 애용하는 사람들은 아침에만 7-8명 된다. 재직중에 한 때나마 헬스 동호회 회장을 맡아 매일 같이 운동을 하다보니 이처럼 많은 세월이 흘렀다. 아침 일찍 상쾌한 마음으로 운동하며, 매일 체육관에서 젊은 사람들의 「기」를 받으며 살다보니 정말 나도 젊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한다. 마음을 비우고, 놀이를 즐기는 것 - 그것이 건강의 비법이 아닐까.

글: 김남규 회우

수필

세네갈 무명화가의 그림 한 점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나의 눈길을 끈다. 아프리카 여행 때 세네갈의 고레섬(Ilede Gorree)에서 10달러를 주고 산 세네갈 어느 무명화가의 그림이다. 이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인지의 여부는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았던 한국화나 서양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그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다녀 온 아프리카가 주마등처럼 펼쳐진다.

"아프리카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이렇게 읊은 어느 시인의 시구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비극적인 대륙이 아프리카다. 아프리카는 유럽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륙이다. 일찍 개화하고 바다에 눈을 돌린 유럽의 영국・독일・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이탈리아・벨기에 등은 앞을 다퉈 아프리카를 찢고 쪼개어 식민지로 삼았었다.

15,6세기 급격한 산업화로 노동력이 필요하자 유럽 여러 나라는 중동이나 먼 아시아보다는 가까운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구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배경이었던 것이다. 서아프리카의 세네갈은 아프리카 대륙의 슬픈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의 하나다. 고레섬!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배로 15분 거리에 있는 그 고레섬은 길이가 9백 미터에 폭은 3백 미터로서 1시간이면 일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섬이다. 그 섬이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인도양의 잔지바르(Zanzibar)섬과 대서양의 고레섬은 노예의 집결지였다고 한다. 그 고레섬이 지금은 백인들의 만행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걸 상전벽해라고나 할까.

고레섬에는 지금도 노예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찾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노예의 집을 이 방 저 방 구경하노라니 소름이 돋았다. '내가 만일 이 방에 갇혀 있다가 노예로 팔려간다면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니 전율이 느껴졌다. 노예로 팔려간 흑인들의 슬픔이 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아프리카에 상륙한 유럽의 백인들은 3백년 동안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사냥하듯 마구잡이로 붙잡은 흑인 2천만 명을 이 고레섬에 가둬두었다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내 팔았고, 또 수백 만 명이 이곳에서 병에 걸리거나 맞아서 죽었다고 역사는 전한다.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소나 돼지 등 가축이나 다를 바 없이 취급되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이하의 대우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때 하느님은 이처럼 참혹한 현상을 왜 방관만 하셨을까.

백인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잡아온 노예들의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이 노예의 집에 가두어 두었다. 우리 속의 가축이나 무엇이 다르랴. 불행하게 노예로 붙잡힌 흑인들은 자신이 어디로 팔려 가는지도 모른 채, 이 노예의 집에 갇혀서 대서양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노예의 집 벽에는 흑인들이 몸부림치며 벽을 긁었던 손톱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고, 옛날 노예들의 발목에 채웠던 쇠고랑도 그 모양 그대로 전시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만든다.

여자의 방, 남자의 방, 어린이 방 등으로 나누어진 노예의 집에는 가족과 생이별한 흑인들이 백인들의 채찍을 맞으며 억지로 끌려와 갇혔을 것이다. 그 흑인들은 자기들이 끌려갈 유럽과 아메리카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고향 아프리카를 떠났으리라. 부부나, 부모자식이 헤어지면서도 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때의 흑인들이었다. 그 비통한 슬픔을 어떻게 위로 받을 수 있으랴. 그러니 그들은 자유가 주어진다 해도 이산가족(離散家族) 찾기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레섬 노예의 집 마당에는 날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빽빽하게 들어찰 것이다. 그들은 해설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기념사진 찍기에 바쁠 것이다. 세네갈 흑인들은 옛날 노예로 팔려간 조상들의 그 아픈 상처를 벌써 잊어버렸는지 하나라도 더 상품을 팔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어서 오히려 눈물겨웠다. 노예의 집이 있던 긴 골목에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노예로 끌려간 옛 조상들의 비극은 어느새 잊혀진 듯 보여 안타까웠다.

세네갈 고레섬에서 10달러를 주고 산 무명화가의 그림 한 점은 언제나 나에게 아프리카에서의 추억을 되새겨 주고, 슬픈 아프리카의 역사를 소곤소곤 들려준다.

글 : 김 학 회우

KBS 8월호 2009.7.28 5:36 PM 페이지4

요즘 어떠세요?

이길영 [대구 경북 한방산업진흥원장] 회우와 함께

○ 김삼일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어도 옛날과 다름없으십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길영: 요즘은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름을 잊은 지도 오랩니다. 그동안 '대구경북 한방진흥원을 설립하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2006년에 설립하고, 2007년부터 초대원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북도, 대구시에서 각각 50% 씩 재정부담해서 설립한 것입니다.본원은 경산시 갑제동에, 분원은 대구시 중구 남성로에 두고, 14명의 연구원이 한약계관련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진흥원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 최근 노령화, 고령화 사회에서 합성 의약보다 천연물 의약이 효과적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료보다는 예방쪽으로 세계 의약 시장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한방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한약'을 생산하자는 의도입니다. 한약재의 과학화 표준화를 주도하고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와 품질 인증제를 마련, 한방 산업을 진흥시키고 한약재의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한방산업진흥」에 큰 뜻을 두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시나요?

- 진흥원은 한방,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건강기능식품, 한방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산업화를 주도하고, 우리나라 한의학 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는 350년의 전통을 지닌 약령시가 열리고 있고, 경북에서는 문경, 예천, 상주, 안동, 봉화, 영주 등 북부 지역이 모두 세계에서 제일가는 한약재 생산기지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진흥원에 700억 원을 투입해서 한약재 화장품과 식품을 개발해서 기업들에게 로열티 없이 나눠주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숙명!

○ 그렇게 되면 한약관련 제품생산은 활성화 되고 한방산업은 크게 진흥되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입 한약재의 품질관리와 국산 한약재 품질검사, 한약재 품질관리자 교육, 한약재 제조산업체 품질관리자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 예컨대 천식, 치매, 아토피, 관절염 등의 치료 예방 약재 개발과 건강기능 식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급속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차분히 노령화시대에 대비해 놓고 하나하나 정책을 개발해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 고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정거입니다. 원장을 맡고 보니, 정말 보람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한방산업이 성공하면, 우리지역 특화산업으로서 큰 각광을 받게 됩니다.

○ 말씀을 듣고 보니, 열정과 정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방송계에 계실 때와 지금과는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지시는지요?

- 방송언론이 사회정의 실현의 중심이었다면 한방산업은 노령화시대의 인간의 행복, 즉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의 행복한 죽음에 공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KBS시절 ·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방송의 사명을 완수하려 노력하였습니다. 1998년 부터 대구TBC 사장으로 8년간 재임하면서 방송의 지역통합 기능을 살려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입니다.

○ 지금 원장님의 표정을 살펴보니 희망이 넘칩니다.

- 그렇게 보입니까? 새로운 희망을 지니고, 건강한 21세기가 되는데 한방진흥원이 항상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질병치료에 앞장서고, 그 약재와 획기적인 치료방법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라는 숙명인가 봅니다. 평생 방송계에 몸담아 살아왔고 60대 중반엔 한방진흥원에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말씀을 듣다보니 그렇습니다. 인간이 늙을수록 아름답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원장님은 아름답게 나이가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터뷰 · 사진: 김삼일 회우

●●● 의학정보

전립선, 그 20g의 비밀

조물주가 태초에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비뇨기과에서는 우스개로 전립선이 있고 없고를 따진다. 그런데 크기라고 해봐야 고작 호두알만한, 무게도 20g 가량밖에 나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나이가 들면 남성이면 대부분 겪게 되는 다양한 전립선 질환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조물주는 남성에게 전립선을 만들고, 그것도 제일 중요한 부위에 숨겨놓으셨을까. 어찌 생각하면 불편한 혹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립선 속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다양한 신비의 세계가 그 속에 펼쳐져 있다. 배뇨는 물론이고 사정과 발기의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전립선이야말로 진정한 남성의 상징이요, 남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조물주가 남성에게 준 신비의 장기 전립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전립선 이해하기

전립선(前立腺, prostate)은 '전립샘'이라고도 하며,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쪽에 붙어있는 20g 정도의 호두알 크기의 분비샘이다. 이 전립선은 사정과 발기, 그리고 배뇨의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정액과 소변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는 물론 성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전립선의 뒤쪽 윗부분, 방광의 뒤쪽 아래 부분에는 한 쌍의 주머니 모양의 정낭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액의 2/3 가량을 구성하는 정낭액을 생산한다. 이 정낭액은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 여성의 질, 자궁, 나팔관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정낭의 분비물은 사정 시에 전립선 뒤쪽으로부터 관통하는 사정관을 통해 전립선 요도로 배출되어 밖으로 나온다. 전립선, 부고환 및 정낭과 같은 부성기에서는 각기 전립선액, 부고환액, 정낭액 등의 분비액이 나오는데, 이들은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함께 정액이 된다.

2. 전립선 질환은 무엇이 있는가?

여성의 나이가 주름살에서 온다면, 남성의 나이는 화장실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자갈밭에 돌멩이도 당구공처럼 튀게 만들 자신이 있던 젊을 때와는 달리 가늘어지는 소변줄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감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을 두고 하는 말인데,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그리고 70대에는 70%가 앓을 만큼 노화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립선암이나 전립선염 등도 남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전립선 질환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전립선 비대증** : 요도를 둘러싼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을 보기 힘들어지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는 중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뚝 끊기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전립선염** :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일반적으로 요도의 세균이 전립선으로 침투해 생기는 병으로 갑작스런 고열과 오한, 배뇨 시 통증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중증의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위급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전립선암** : 전립선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식습관,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글 : 정정만 박사(비뇨기과전문의)

신입 회우 환영합니다

- 강희수 / 150-72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현대5차Ⓐ 512-702 (010-2034-0684, 02-2636-7336)
- 김진철 / 150-096,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문래동6가 동양파라곤Ⓐ 201-1407 (010-8997-8645)
- 박수창 /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1차Ⓐ 108-501 (010-4932-1546, 02-596-8174)
- 서기원 / 560-77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9-1301 (011-657-1944, 063-223-1944)
- 서종학 / 790-81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구만리 7-2 (010-7939-2041, 054-284-1711)
- 염현섭 / 411-73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607-301 (011-261-2887, 031-914-0123)
- 이광태 / 150-94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자이Ⓐ 113-1804 (011-9070-5983, 02-2068-5678)
- 이창열 / 150-845,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240-30
- 이 활 / 719-883,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803-1 (010-4801-2838, 053-628-2838))
- 최익로 / 790-81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2리 202-4 (011-824-5520, 054-284-5525)
- 최정광 /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748-40 설악팬션 (011-720-0245, 033-636-1546)

주소변경회우

- 강병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13 판교원마을현대힐스테이트1108-802 (011-303-1771, 031-8017-1771)
- 김봉식 / 대구 동구 효목2동 태왕메트로시티Ⓐ 107-1101(053-795-1279)
- 김상진 / 대구 동구 지저동 652-5 동림홈타운 103-102
- 김주철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 로얄팰리스 A-808
- 이상갑 / 서울 동작구 사당3동 대림Ⓐ 5-703
- 임응식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푸르지오Ⓐ 402-102 (010-3758-4468)
- 정순일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우림Ⓐ 102-803
- 최승민 / 강원 춘천시 신사우동 롯데캐슬Ⓐ 204-304
- 박문호 /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20 봉천벽산블루밍3차Ⓐ 601-1403
- 문종철 /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0-43 반포자이Ⓐ 132-904
- 배학철 / 서울 강서구 가양동1461 도시개발Ⓐ 206-414
- 김선옥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림1차Ⓐ 406-2601
- 최형주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612호
- 이양자 / 광주 서구 풍암동 1130 금호타운Ⓐ 103-901 (010-9441-7321, 070-7675-5700) happypd@daum.net
- 문형찬 / 광주 서구 풍암동 1130 금호타운Ⓐ 103-901 (070-7675-5700)
- 권문식 /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45-12
- 이성영 /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03-56 효성서초빌라 1-303
- 이상만 / 서울 송파구 장지동 844 송파파인 7단지 704-1203 (02-403-7477)
- 안희준 / 강원 강릉시 교2동 E편한세상Ⓐ 104-101
- 서기상 / 대전 서구 가장동 래미안Ⓐ 105-1803
- 김명한 / 충북 충주시 칠금동 코오롱동신Ⓐ 104-403
- 안국정 / 서울 서초구 방배동 593-32 호원빌라 502호
- 권순영 / 부산 사하구 괴정2동 88-3 (12통 3반)
- 서성준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촌2동(구)마을회관 (010-6782-2050, 053-732-6635)
- 서상립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860-4
- 이영섭 /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167-47
- 권기창 / 010-8563-3727
- 문무광 / 010-8810-7190
- 김원대 / 010-3695-6115
- 성기영 / 053-285-6241
- 도문개 / 010-3818-3853
- 백성필 / 010-3813-0220
- 이찬호 / 010-5206-7475
- 전용진 / 053-633-9393

다음호에 계속…